

“그들의 말에 따르면”

어떠한 문제에 대한 사실을 깊이 파헤쳐 들어가면, 아주 종종, 코멘트를 붙일 필요도 없이, 중추 역할 담당자들과 가장 통찰력있는 해설자들이 스스로 말해주게 되어있다. KAL 007기 경우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미사일 폭발이 일어난 후의 KAL 007기 상태

레이더 상에서 KAL 007기를 추적하는 동안 스미르니크 공군 기지 사령관 노보셀레츠키 중령은 오시포비치 소령의 지상 관제관인 티토브닌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냐니까, 누가 그를 인도했나, 조준을 했다면서 왜 격추시키지 않은거야?”

소콜 공군기지 (사할린 소재) 사령관이자 격추 당시 전술 지휘관이던 코르누코프 장군은 41 비행 연대, 지휘관 대리인 게라시멘코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알았어. 결과를 이해할 수가 없군. 왜 목표물이 날고 있는 거야?
미사일을 쏘잖아. 목표물이 왜 날고 있는 거야? [육설]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추락하기 전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테이프에서 듣게 되는 전형적인 마지막 순간의 말

유에스 항공427기, 1994년 9월 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

기장: 오 맏소사, 하느님...!

관제탑: 유에스 에어.

기장: 427기, 비상 사태!

부기장: [비명]

기장: 잡아 당겨

부기장: 오...

기장: 잡아 당겨... 잡아 당기라구...!

부기장: 하느님!

기장: [비명]

부기장: 안돼!

테이프 끝남

애틀랜틱사우스이스트 항공 529기, 1995년 8월 21일, 미국 조지아 주 캐럴튼

기장: [부기장에게] 도와줘. 이걸 잡고 있도록 도와줘. 붙잡고 있도록 도와
달라고.

조종실: [조종간 셰이커의 진동음이 실속을 경고하기 시작한다.]

부기장: 에이미, 사랑해.

조종실: [신음소리, 충돌소리]

테이프 끝남

KAL 007기와 비교하면, 천 기장은 부 기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18:27:20: 이제 이걸 설정해야합니다.

18:27:23: 속도.

18:27:26: 스탠드 바이.. 스탠드 바이.. 스탠드 바이...

설정!

러시아 측에 의해 전달받은 테이프 끝남

KAL 007기가 작은 모네론 섬 상을 넓게 나선형을 그리며 하강할 당시 소련측이 내린 즉각적인 구조 명령

게라시 멘코: (6:34)

좌측으로 돌았다, 우측으로 돌았다가, 현재 분명히 강하 중입니다.

코르누코프 장군: (6:36)

그것은 현재 모네론 상에 있다.

티토브닌:

모네론 근처에서 목표물을 잃었습니다, 중령 동지.

노보셀레츠키:

모네론 섬 근처에서?

티토브닌:

두 전투기 조종사 모두 놓쳤습니다. 무선 부대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미사일 발사 후, 목표물이 우측으로 돌면서 모네론 섬 상공으로 들어갔다고

무선 기술 부대에서 보고했습니다.

노보셀레츠키:

음...

티토프닌:

강하 중입니다. 그리고 모네론 상공에서 사라졌습니다.

노보셀레츠키:

그래, 임무다. 목표물이 현재 또 다시 우리 국경선을 침범했다고 했나?

티토프닌:

모네론 섬 인근이니까 물론 우리 영공입니다.

노보셀레츠키:

잡아! 잡아! 빨리 미그 23기를 불러들여.

티토프닌:

알겠습니다. 미그 23기는 해당 지역에 있으며 현재 5,000 [미터]로 강하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발견 즉시 파괴하라.

노보셀레츠키: (6:47)

거기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가?

티토프닌:

예, 30분은 더 있어야 할 겁니다.

노보셀레츠키:

모든 헬기를 준비시켜. 구조 헬기 말이야.

티토프닌:

구조라고 하셨습니까?

노보셀레츠키:

그래. 목표물이 사라진 지역을 수색을 임무가 부여될 것이다.

티토프닌:

알겠습니다. 그쪽 수색 구조대에서 맡는 겁니까?

노보셀레츠키:

뭐?

티토프닌:

중령 동지, 그쪽 수색 구조대를 통해 그 임무를 차이카에 부여해 주십시오. 코무토보 (사할린 섬 남쪽 유즈노-사할린스크 (Yuzhno-Sakhalinsk) 시에 있는 군항 및 민항)는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닙니다. 노보알렉산드로프스카

(Novoaleksandrovskaja) 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권한이 없습니다.

노보셀레츠키:

알겠다.

티토티브닌:

노보알렉산드로프스카와 코무토보에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국경 경비대와 KGB는 코무토보에 있습니다.

스트로고프 (Strogov) 장군 극동 관구 부사령관: (6:54)

들리나...들리나, 티토티브닌.. 너 정말... [욕설] 네 놈을 영창에 처 넣을 테다, 왜 전화를 안받는 거야?

티토티브닌:

장군 동지, 여기는 모두가 바쁩니다.

스트로고프:

네 놈들 거기 바쁠 것 하나도 없어. 바쁘다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코르누코프는 어디에 있나?

티토티브닌:

코르누코프 장군은 여기 있습니다.

스트로고프:

연결해.

티토티브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카멘스키 장군에게 보고 중입니다, 장군 동지.

스트로고프:

그래, 지금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연락해서... [욕설], 이 선박들에 연결해서, 이들, 이들은 뭐라고... [욕설]?

티토티브닌:

국경 경비대 말씀입니까?

스트로고프:

뭐?

티토티브닌:

국경 경비대 말씀입니까?

스트로고프:

글쎄, 민간인 선박들 있잖아.

티토티브닌:

알겠습니다.

스트로고프:

국경 경비대도 보내. 모네론 근처에 지금 배가 있나? 민간인 선박이라도 좋으니 그쪽으로 바로 보내.

티토티:

알겠습니다, 장군 동지.

KAL 007기 추락 추정 장소에 시체나 수화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던 미스터리

소련 극동관구 공군기지수반 블라디미르 카멘스키 장군:

“그 비행기에 있던 승객들과 승무원들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이다. 한 가설에 의하면, 로켓이 폭발하면서 점보 제트기의 기수와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중간 동체 부분은 바람 터널같이 되어 사람들이 거기로 쓸려나가 대양으로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수색 작업하는 동안 그 지역에 시체 몇 구 정도는 발견되었어야 했다. 공격이 있던 후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의문에는 아직 어떠한 확답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제임스 오버그 (James Oberg), 전 미 항공 우주국 (NASA) 관리. 추락 분석 전문가:

“추락하던 항공기가 바다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10분 정도 시간이 있었음을 기억하자. 그 시간 동안 전부는 아니라도 많은 승객들이 구명 조끼를 착용했을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좌석 벨트를 메고 있었을 것이다. 비행기가 바다에 아무리 세게 떨어졌다 해도 269명 전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구명 조끼를 입고 수면으로 떠 오른 승객들이 있어야 한다. 좌석 벨트에 메인 채 밑바닥에 남아 있는 승객들도 있어야 한다. 그들이 모두 그냥 사라졌을 리는 없다.”

바다 밑 남파된 KAL 007기에서 시체나 수화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란 잠수부들

비야체슬라브 포포프 (Viyacheslav Popov):

“바다 밑바닥에 시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크게 안도했다는 점은 인정해야겠어요. 시체만 없는 게 아니었어요; 여행 가방이나 손 가방도 없었어요.”

미하일 이고레비치 기르스(Mikhail Igorevich Girs) 선장:

“10월 10일 잠수. 비행기 파편, 날개 조각, 비행기 외피 조각, 옷가지, 그러나 시체는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 있었다—지퍼가 채워진 옷들이다. 코트, 정장 바지, 짙은 바지, 지퍼 달린 스웨터 등 종류는 다양했지만, 모두 지퍼가 채워져 있었다. 옷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내렸다. '승객들은 기내 감압에 의해 비행기 바깥으로 빨려나갔고 비행기 잔해가 발견된 현장과 전혀 다른 곳에 떨어졌다. 시신들은 훨씬 넓은 지역으로 흩어졌다. 조류도 한몫했을 것이다.’”

자하르첸코 (V. Zakharchenko), 마체벤코 (G. Matyevenko), 콘트라바예프 (V. Kondrabayev):

“나는 모든 잠수 작업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인상을 받았죠: 비행기에는 쓰레기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시체는 없다. 왜 일까? 보통 비행기가 추락하면 소형 비행기라 해도... 보통 손가방이나 여행 가방, 최소한 가방 손잡이라도 나오는 법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본 것보다 (보았어야 했음에도) 보지 못한 것이 더 중요하죠—잠수부는 시체나 유해를 전혀 보지 못했어요....”

정체 불명인 공해상을 비행하는 비행기 격추에 대한 소련 사령관 사이의 내부 갈등

극동관구 공군사령관 카멘스키 장군에게 코르누코프 장군은 이렇게 말한다:

... 공해 상에서라도 그냥 파괴 시켜버리라고? 공해 상에서 그것을 파괴 시키라는 명령인가?

[카멘스키] 장군 동지, 코르누코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상황 보고합니다. 목표물 60-65 ("침입 비행기" KAL 007 호출 부호) 는 현재 국경에서 240.34

킬로미터 떨어진 테피니 만 상공에 있으며, 소콜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6
킬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전투기는 조준한 상태입니다. 무기를 장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표물은 신호에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직 어두워서
조종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속 조준하고
있습니다.

카멘스키:

알아내야 해. 민간 비행기인지 어떤지 모르니까 말이야.

코르누코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캄차카 반도를 넘어왔습니다! 정체도 밝히지
않은 채 바다에서 [말입니다]. 국경을 넘어오면 공격 하라는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카멘스키

그대로 시행하라, 내가 명령...[?]

코르누코프 (게라시멘코에게):

이런, [육설], 공격 위치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거야], 벌써 공해까지 나가
버렸잖아. 빨리 후기 연소기 가동해. 미그 23도 불러들여. ...네 놈이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목표물이 금세 날아가 버릴거야!

**블랙 박스를 이미 획득한 상태이며 비행기체와 블랙 박스를 모두 발견하고도 (거기다
이미 승객들까지 납치한 상태에서) 소련 측도 KAL 007기와 그 블랙 박스를 찾고
있다는 것을 미국과 일본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기만 작전의 성공**

1983년 11월 Top Secret Memo 에서 KGB 수반 빅터 체브리코페 (Victor Chebrikove)
와 국방 장관 디미트리 유스티노프 (Dmitri Ustinov) 가 소련 수상 유리 V.
안드로포브 (Uri V. Andropov) 에게 이렇게 쓰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게 허위 정보를 흘리기 위해 현재 동해에서 우리 선박들이
가장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작업들은 특정 계획에 맞추어 중지될
것입니다.”

이즈베스티야 관영지에 보도된 한 소련 어부의 보고:

“기억납니다. 일본 수색선 케이코 마루 제 3호 (아니면 카이코 마루 제3 호)가
미르칭크 호 옆에 닻을 내린 때였어요...그때 [소련 태평양 해군]

사령관인 시도로프 제독이 사할린에 정박 중인 저인망 어선에 그래프넬(정박 케이블이나 닻줄을 끊는 장치)를 달아서 빨리 케이코 마루 옆에 정박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케이코 마루 호가 탐사 장치를 내리자마자 그 저인망 어선이 케이코 마루호의 조종 케이블을 자르는 거죠... 그들이 무슨 일을 계획했는지 보세요: 완전히 해적질이었어요! 케이코 마루 호는 우리 해군이 심어놓은 가짜 '과동음 발진 장치'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그 미끼에 걸려서 잘못된 장소로 가 버렸거든요.”

다섯번째 메모:

일급 비밀

유 V. 안드로포프 [소련 수상] 동지께

...비행 녹음 장치 분석에서 얻어진 사실 정보 분석과 비행기가 격추된 후 미국 정부가 취했던 자세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정보부에 의해 완전히 계획된 높은 정치적 도발에 직면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소련으로 들어온 그 비행기의 침입은 페렛 스파이 인공위성을 사용하는 등 여러가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우리 극동관구 공군기지에 대한 첩보에 좋은 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니다. 만약 침입 비행기가 아무 공격도 받지 않고 소련 영공을 비행할 수 있었다면, 미국은 우리 극동관구 공군 기지의 비효율적인 곳을 압박할 작전을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니다. 두번째로, 만약 비행기가 파괴되어 버린다면, 소련을 비난하는 국제적인 반 소련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었습니니다. 미국 정보부 측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비행체에 은밀하고 도발적인 성격이 있다는 사실 둘 다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측 노력은 미국의 완전한 목적 달성을 막았습니니다.

이 활동이 완전히 미국에 의해 계획된 것이었기에, 진짜 목적을 은폐하려는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니다. 소련 영공 침입이 의도적이었다는 객관적인 확인이 비행 기록 장치를 해석하면서 나타났지만, 비행기가 스파이적 임무를 띠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니다. 그러므로, 비행 기록 장치가 서양으로 넘겨지게 되면, 이 객관적인 정보가 소련 측과 서양 측에 공유되게 되어 우리 측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한국 비행기가 가졌던 목적이었다고 지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반 소련 히스테리로 가는 새로운 국면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것과 관련하여ICAO나 내용 분석을 하고자 하는 어떠한 제 3의 단체에게도 비행 기록 장치를 넘겨주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가 소련 측에 있다는 사실도 비밀로 부쳐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미국이나 일본은 비행 기록 장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에도 이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데도 손을 썼습니다...

동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D. 유스티노프 (Ustinov), V. 체브리코프 (Chebrikov)

[해설: 유스티노프는 국방장관이었으며 체브리코프는 KGB 수반이었다]

러시아의 최근 역사 자료실 수석 대리인 미하일 프로주멘취시코프 (Prozumentshchikov) 는 KAL 007기 추락 20년째 기념일인 2003년 9월1일, 리아 노보스티 (RIA Novosti) 에서 이렇게 의견을 표현했다.

"많은 수의 미국, 일본, 소련 비행기들과 선박들이 사고가 난 그 지역을 집중 수색했다. 그들은 서로 서로의 수색 노력에 방해하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서로를 자극하면서 (미국 선박들은 소련 비행기들이 그들 위를 날아다니면 쏘아버리겠다고 러시아 측에 반복해서 경고했다) 비행기 수색에 그리 협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보잉기가 어디에 격추되었는지는 당연히 소련 측이 더 잘 알고 있었으며** 동시에 소련 해안 쪽으로 불어오던 바람 덕분에, 가리앉은 비행기 주요 증거물은 소련 측으로 들어가 버렸다... 소련 측과 미국이 사용했던 심해 선박들로도 비행기 난파물에서 무엇인가를 회수한다는 것은, **특히 소련이 이에 특별히 관심이 없었던 이상**, 매우 문제적일 수 밖에 없었다."

KAL 007기 승객들

제시 헬름스 상원의원이 노엘 그렌펠과 스테이시 그렌펠 자매를 마지막으로 만난 장면에서 (2002년 2월 13일 국제 KAL 007기 생존자 구조 위원회에 발표된 성명문에서):

"저는 앵커리지 공항에서 우리 비행기와 함께 있었던 그 비행기에 탔던 그 두 소녀와 소녀들의 부모들과 함께 있었던 그 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수화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들이 코너를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했던 것은 그 작은 손을 뻗쳐 저를
사랑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전 그걸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